국내매체 보도 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경제일반

◆ 경제일반

탈북자 송금 중개인 단속에 따른 북한의 외화 유입 감소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공안 기관이 탈북자 송금 중개인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하였음.

- 방송은 송금 단속으로 외화 유입이 감소하면서 북한의 장마당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북한의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송금 중개인을 적극 단속하면서 시장으로 흘러들던 외화가 감소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전했음.

○ 현재 한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3만 명이며, 탈북자가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연간 약 1,000만 달러(한화 114억여 원)로 알려졌음.

연합뉴스, "北, 탈북자 송금 중개인 단속으로 외화유입 감소〈RFA〉", 2016.04.01.

북한의 3가지 경제 정책: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개발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경제 강국 건설은 현 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기본 전선"이라며, 2012년 집권 이후 4년간 모색해온 '김정은식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공식 발표하였음.

○ 경제 분야 '사업총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였음.

- 첫째, 중기경제계획으로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5개년 전략) 발표
- 둘째, 김정은식 경제개방 전략으로서 '경제개발구' 활성화
- 셋째, '김정은식 경제개혁(시장화) 전략'으로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공식화

○ 김정은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하겠다"며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음.

한겨레, "경제발전 5개년 전략·개발구·'우리식 관리' 3종 세트 내놔", 2016.05.08.

공급 과잉에 따른 평양 아파트 가격 폭락

○ 평양 시내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2016년 반값 이하로 폭락하였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보도하였음.

- 보도에 따르면 평양 시내 200㎡ 면적 고급 아파트의 2014년 시세가 약 20만 달러(약 2억 3,430만 원)였으나 최근 가격이 하락하였음.
- 2012년 창전거리에 고층아파트 단지가, 2015년 가을에는 미래과학자거리에 고층 아파트가 각각 건설됐음.
- 2016년 3월에 대학 연구자를 위한 주택과 공영 시설을 갖춘 려명거리의 건설이 시작됐음. 평양에 아파트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되면서 북한 부유층이 구매를 자제하기 시작했음.

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 평양 아파트 공급 과잉에 가격 반 토막", 2016.05.15.

신흥 부유층 '돈주'을 겨냥한 광고 등장

○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이 북한에 생겨나면서 평양에도 광고가 등장하였음.

- 미국의 소리(VOA)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떠오르는 북한 신흥 소비자층과 부유층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이 광고 등장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음.
- 통신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미백 치약과 암과 결핵 치료에 좋다는 해삼 가공식품 등에 대한 광고를 예로 들었음.

뉴스1, "北, 신흥 부유층 '돈주' 등 겨냥 광고 등장하고 있다", 2016.05.19.

북한, '10%대 고금리'로 주민 저축 독려

○ 북한이 고금리를 보장하며 주민의 저축을 독려하고 있음.

-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DPRK 360'은 "최대 11% 금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북한 은행이 영업에 들어갔다"며 최근 북한을 다녀온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 판 씨가 찍은 사진을 공개했음.
- 2016년 5월에 개최된 평양무역박람회에선 '진명합영은행'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3개월 2%, 6개월 3%, 1년 7% 금리를 제공한다"며 예금 판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음.

동아일보, "北 '10%대 고금리'로 주민들 저축 유혹", 2016.06.03.

북한, 개인 부동산 소유 허용

○ 북한 정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부동산 소유를 허용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가 보도했음.

- 매체는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개인의 명의로 땅을 사거나 집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적인 행위로 취급했다"라고 말했음.
- 매체는 "하지만 최근 개인 주택 건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세웠음. 그 일환으로 개인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면적을 정권이 지정해주고 그를 초과하는 경우 무상몰수 한다는 규정을 내결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음.
- 뉴포커스는 북한 정권이 개인 소유로 승인한 땅 면적은 세대 당 26㎡라고 전했음.

○ 북한이 개인 부동산을 허용한 것은 개인의 주택 건설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임.

- 북한에 시장경제가 부활하면서 돈 많은 주민이 중국에서 자재를 주문해 개인 주택을 다량으로 건설했음.
- 북한 정권은 개인 주택 건설을 중지시키는 태도를 보이다가 점차 땅 값을 받고 건설을 허용했음. 대신 아파트 동수에 따라 판매액의 일정액을 정권에 무조건 지급하게 하도록 했음.

○ 북한 정권은 주택 건설 허가를 담당했던 주택관리소의 권한을 철회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면적의 개인 부동산을 허용했음.

국민일보, ""北,개인 부동산 소유 허용"〈뉴포커스〉", 2016.06.28.

◆ 대외무역

중국 대북 제재 공식화, 수출입 금지 품목 발표

○ 중국 정부는 2016년 4월 5일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25종을 발표하였음.

-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결의 2270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지 한 달 만임. 중국이 유엔 결의 채택 이후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 금지 품목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 강, 희토류 등 총 20종이 포함됐음.

- 그러나 민생 목적이거나 핵·미사일 실험과 무관한 석탄과 철, 철광석 수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상무부는 밝혔음.
-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기업 대표나 책임자의 직인이 첨부된 서약서를 제출하고 해관(세관)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함. 금과 하늄, 바나듐광과 희토류 등의 광물에 대해서는 수입이 전면 금지됐음.

매일경제, "중국 대북 제재 공식화…수출입 금지품목 첫 발표", 2016.04.06.

김정은 집권 이후 매년 북한-홍콩 교역 감소

○ 북한과 홍콩 간 교역 규모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매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음.

- RFA에 따르면 코트라(KOTRA) 홍콩무역관은 홍콩무역발전국의 통계를 인용해 2015년 홍콩과 북한의 교역 총액이 648만 달러로 지난 2014년의 1,087만 달러보다 40.4% 감소했다고 밝혔음.
- 양국 간 교역액은 2012년 6,307만 달러, 2013년 2,699만 달러임. 2015년 북한이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총 484만 달러어치였으며, 이 가운데 담배(287만 달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
- 북한의 대홍콩 수출은 은을 포함한 귀금속(45만 달러), 냉동 넙치(36만 1,000달러) 등이었음.

연합뉴스, "북한-홍콩 교역 규모, 김정은 집권 후 해마다 급감", 2016.04.07.

2015년 북한의 러시아 수출액 전년 대비 절반 수준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5년 북한의 러시아 수출액이 2014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국제무역센터(ITC)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였음.

- ITC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상품의 규모는 572만 달러(65억 원 상당)로 전년도(1,300만 달러)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음. 반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도의 7,177만 달러에서 7,750만 달러(약 893억 원)로 늘었음.
- 북한이 러시아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생선, 남성용 양복과 코트 등의 순이며 수입품은 석탄류가 가장 많고 석유류가 뒤를 이었음.
- 2015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7,177만 달러 적자(약 827억 원)를 기록했음.

연합뉴스, "작년 북한의 러시아 수출액 전년도 절반〈RFA〉", 2016.04.09.

2016년 1분기, 북중 교역액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6년 1분기 중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12.7% 증가하였음.

- 황쑹핑(黃頌平)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대변인은 중국의 무역 통계 설명 기자회견에서 2016년 1분기 북-중 교역액이 총 77억 9,000만 위안(약 1조 3,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고 밝혔음.

- 대북 수출액은 39억 6,000만 위안(약 6,994억 원)으로 14.7% 늘어났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8억 3,000만 위안(약 6,764억 원)으로 10.8% 증가했음.
- 중국의 대북 수출품은 기계·전자제품, 섬유나 의류 같은 노동집약상품 및 농산품이고 수입품은 석탄과 철광석임.

동아일보,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1분기 북중 교역액 12.7% 증가", 2016.04.13.

북한, 2월 중국산 비료 수입 84배 증가

○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이후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비해 중국산 비료를 대량으로 수입했음.

-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16년 2월 중국으로부터 7만 9,000톤이 넘는 비료를 수입했음. 이는 2015년 2월 945톤의 비료를 수입한 것에 비해 84배 이상 급증한 규모이며, 2015년 총 비료 수입량인 7만 1,000톤을 웃돌았음.

이데일리, "北, 2월 중국산 비료 수입 84배↑…제재 전 물량 확보", 2016.04.16.

북한의 지하자원, 낮은 가격에 중국으로 수출

○ 북한이 중국에 각종 지하자원을 국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수출하면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기회 손실액이 51억 달러(한화 5조 7,700억 원)에 달함.

- 북한자원연구소의 '북한 지하자원 수출가격 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1~15년 무연탄을 비롯한 6종의 주요 광물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총 75억 2,800만 달러(한화 8조 5,254억 원)를 벌었음.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당시의 국제 거래 가격으로 수출했다면 총 126억 3,000만 달러(한화 14조 3,034억 원 상당)를 얻었을 것으로 예측했음.
- 품목별로는 평균 국제 거래 가격의 58% 수준인 톤당 82달러에 거래된 무연탄 관련 손실액이 42억 달러로 압도적이었음. 이어 철광석, 동 정광, 마그네사이트, 아연 정광, 아연과 순이었음.

연합뉴스, "北,중국에 지하자원 '헐값수출'…5년간 51억불 손실", 2016.04.20.

2016년 3월, 북한의 대중 수출 증가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시작된 2016년 3월 북한-중국 간 석탄 거래는 증가한 반면 철광석·항공유 등의 거래는 급감하였음.

- 코트라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억 2,900만 달러로 2015년 3월 대비 13% 증가했음. 대북 수출액도 2억 3,600만 달러로 15.6% 상승했음.

-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1억 600만 달러로 2015년보다 30.73% 증가했음. 이는 2016년 2월 수입액(6,900만 달러)와 비교해도 53% 급증한 것임.
- 철광석 수입은 3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43% 줄고, 귀금속 광물의 수입도 190만 달러로 43%가량 감소했음. 항공유가 포함된 정제유의 수출은 2015년 대비 31.76% 감소했음.

○ 유엔 안보리 결의는 민생과 관련 없는 북한산 석탄·철광석, 귀금속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중국의 주요 대북 수출품은 과일류(1,200만 달러), 섬유(960만 달러), 정제유(640만 달러), 화학비료(550만 달러) 등으로 분석됐음.

○ 중국 해관당국은 2016년 4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중국 무역이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북 제재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음.

아시아경제, "대북 제재 첫 달, 북중 간 거래내역 보니…석탄↑·철광석과 항공유", 2016.04.24.

북한-러시아 교역액 급감

○ 북한과 러시아의 2016년 1분기 교역액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음. 반면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액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 러시아 연방관세청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액은 총 1,675만 달러였음. 이는 2015년 동기 교역액 3,600만 달러에 비해 54%나 줄어든 수치로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임.
- 러시아는 2016년 1분기 북한에 약 1,33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2015년 동기에 비해 62% 감소한 것임.

○ 러시아가 북한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약 1,100만 달러가 팔린 광물성 연료로 이 가운데는 석탄이 가장 많았음.

- 석탄은 2016년 1분기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의 90%를 차지했음. 북한의 석탄은 2016년 1분기에 러시아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음. 석탄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석탄, 철광석 등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 북한의 러시아 수출액은 총 3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음.

-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는 280만 달러 규모의 냉동 어류였으며 2위는 28만 달러 규모의 의류였음.

뉴스1, "북한-러시아 1분기 교역액 반 토막…北수출은 3배 증가", 2016.05.15.

스위스, 캐비어·와인 등 대북 금수 품목 25개 지정

○ 스위스가 대북 독자제재를 위한 수출금지 사치품목 25개를 지정했음.

-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가 공시한 시행령에 포함된 이번 대북 금수 품목은 총 25개임. 앞으로 북한에 25개 품목의 판매·공급·수출·중계가 전면 금지됐음.
- 고급 식재료인 캐비어(철갑상어 알)와 생선 알로 만든 캐비어 대체품, 송로버섯, 고급 빵과 과자류, 초콜릿, 와인과 증류주, 시가 등이 금수 목록에 포함됐음.
- 진주와 보석, 귀금속류, 수집용 동전, 고급 식기류, 크리스털 유리제품, 고급 가전제품, 고급 녹화기기, 고급 차량과 배, 항공기와 관련 부품, 장식품, 고급 시계, 악기류, 예술품과 골동품, 순종마의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됐음.
- 스키·골프·승마·당구·볼링·해양 스포츠 관련 제품, 도박 관련 장비와 시설, 스키와 수영장 시설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등도 북한으로의 반출 금지 목록에 올랐음.
- 스위스가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금수 품목(12개)의 두 배가 넘음.

연합뉴스, "스위스, 캐비어·와인 등 25개 대북 금수 품목 지정(종합)", 2016.05.24.

2016년 4월,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감소

○ 북한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이 2016년 4월 크게 줄어들었음.

- 중국 해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중국이 수입한 북한산 석탄은 153만 톤으로 2016년 3월에 비해 35%,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5% 줄었음.

○ 중국 상무부는 2016년 4월 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산 광물의 수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통상금지령을 공고했었음.

노컷뉴스,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35% 감소…대북 제재 추정", 2016.05.24.

EU-북한 교역량 10년 동안 85% 감소

○ 유럽연합(EU)과 북한 사이의 교역량이 과거 10년 동안 약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교역량이 3,000만 유로로 집계됐음. 유럽연합과 북한 간 교역량은 2005년 2억 1,900만 유로에서 10년 사이에 85%가 감소한 것임.
- 2013년에는 유럽연합의 대북 수입액 1억 1,700만 유로 가운데 석유 등 연료와 광물 수입액이 9,900만 유로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하지만 2014년에는 유럽연합이 북학으로부터 연료나 광물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음.

- 2015년 유럽연합의 대북 수입은 1,100만 유로, 대북 수출은 1,900만 유로로 집계됐음.

노컷뉴스, "EU-북한 교역량 10년 사이 85% 감소…대북 제재 영향", 2016.06.04.

북한-러시아 교역량 소폭 감소

○ 북한과 러시아 간 전체 교역량이 2015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북한산 수산물의 수출은 늘었음.

- 코트라 모스크바무역관의 '2016 1분기 러시아 북한 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양국 교역액은 1,712만 달러(한화 200억여 원)를 기록했음. 이는 2015년 교역액인 1,823만 달러(213억여 원)에 비해 6.1% 감소한 것임.
-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액은 1,340만 달러로 2015년 대비 1,765만 달러에 비해 약 24% 감소했음. 수입 품목별로는 유연탄(1,100만 달러)과 수산물(116만 달러)이 대부분을 차지했음.
- 북한의 2016년 1분기 대러시아 수출액은 372만 달러(43억여 원)를 기록해 2015년 57만 달러보다 6배 이상 늘었음. 북한은 2016년 1분기 냉동 수산물 282만 달러어치를 러시아에 수출해 2015년 전체 수출액(166만 달러) 규모를 넘어섰음.

연합뉴스, "북러 교역량 소폭 감소…北수산물 수출은 늘어〈RFA〉", 2016.06.14.

2015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62억 5,000만 달러

○ 2015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KOTRA가 발표한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남북교역 제외)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62억 5,000만 달러로 나타났음.
- 2015년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7억 달러를, 수입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3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음. 이에 따라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33% 줄어든 8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음.

○ 북한의 무역 규모는 2009년 3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올라 2014년엔 76억 1,000만 달러를 달성했음.

- 그러나 2015년 석탄, 석유 등 대중국 주요 무역 물품의 단가가 하락하고 교역 물량도 줄어들면서 무역 규모가 감소했음. 대표적으로 석탄은 전년 대비 수출 물량이 26.9% 증가했지만 단가 하락으로 전체 금액은 7.6%가 감소했음.
- 주력 수출 품목인 철광석도 중국 내 철강 공급 과잉으로 물량 자체가 전년 대비 45.5% 감소했음.

○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으로 2015년 북한 전체 무역의 91.3%를 차지했음.

- 대중 무역규모는 57억 1,000만 달러(수출 24억 8,000만 달러, 수입 32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8% 감소했음.

○ 중국에 이어 러시아(8,400만 달러), 인도(7,700만 달러), 태국(5,000만 달러), 우크라이나(3,600만 달러)가 2015년 북한의 2~5위 교역국이었음.

- 일본은 2009년 이후 북한과 교역 실적이 없었고, 미국은 북한에 생필품이나 인도적 차원의 원조 물량만 지원하였음.

동아일보, "북한, 작년 대외무역 규모 62억 5000만 달러…6년 만에 감소", 2016.06.15.

2015년 북한의 중국 교역 의존도 91.3% 기록

○ 2015년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1.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

- 2000년만 해도 북한의 대(對) 중국 교역 의존도는 24.8%였으나 16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커졌음.
-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대(對) 중국 교역액은 57억 1,000만 달러(약 6조 6,236억 원)로 전체 교역액(62억 5,200만 달러)의 91.3%를 차지했음.
- 2000~2015년, 북한과 중국의 누적 교역액은 482억 달러이며, 남한과 북한 간 교역액은 224억 달러임. 북한의 대(對) 남한 교역 의존도는 2000년 17.7%에서 2007년 37.9%로 확대되었으나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2015년 30.3%로 축소됐음.

동아일보, "北의 중국과의 교역의존도 91.3%로 역대 최고…"더 심화될 것"", 2016.06.21.

북한, 양묘장 설비 수입에 어려움을 겪어

○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관련 기계 설비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황금산, 보물산의 새 역사를 펼쳐 가시는 위대한 영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군 제122호 양묘장'의 운영 상황을 소개했음.
- 신문은 "모든 것이 고도로 현대화된 21세기의 양묘장을 이루는 첨단수준의 기계설비들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라니 진정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외침이 절로 터져 나왔다"고 덧붙였음.
- 한편 신문은 "원래 일꾼들은 이 기계 설비들을 수입하려고 생각하였다"면서 "그런데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할 형편이었고 우리의 정정당당한 수소탄 시험과 관련해 일부 적대세력들이 터무니없이 발동시킨 제재봉쇄 책동 때문에 그나마도 실현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했음.

-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점차 강화하고 있음.

연합뉴스, "北, 대북 제재 어려움 실토…"양묘장 설비 수입 못 해"", 2016.06.21.

북미 간 교역액 3개월째 전무한 수준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 여파로 2016년 2월부터 3개월째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2016년 2-4월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음.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인 2016년 1월에는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2만 1,000달러(2,417만 원)를 기록했으며, 교역액 전액은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의료 기기가 민간 지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1~4월 미국-북한 교역액은 2015년 같은 기간 교역액의 약 4.5%임.
- VOA는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의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산업안보국이 모든 품목에 대해 건마다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대북 제재 여파로 미·북 교역 3개월째 제로"〈VOA〉", 2016.06.30.

◆ 대외교류 및 경제협력

중국 훈춘시–북한 나진를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 준공

○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훈춘시와 북한 나진항을 잇는 '신두만강대교'가 2016년 10월 완공된다고 훈춘시가 밝혔음. 다리 건설에는 총 1억 4,700만 위안(약 2,300만 달러)이 투입될 예정임.

- 총 길이 549m의 왕복 4차선인 신두만강대교는 북한-중국 간 교역의 새 거점인 지린성 훈춘시와 나진 특구 간 물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중국 양국은 1936년 완공된 기존 두만강대교가 교각이 흔들려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좁은 폭(6.6m)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자 2015년 9월 새 대교 건설에 착수하였음.

○ 훈춘시는 북한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 사업의 핵심인 '팡천 국제관광개발구' 조성 사업을 2016년 3월 시작했다고 덧붙였음.

노컷뉴스, "중국 훈춘시-북한 나진 연결 '신두만강대교' 10월 준공", 2016.04.02.

북한의 외화벌이 주민 러시아에 매년 평균 65명 난민·망명 신청

○ 김정은의 집권을 전후해 지난 5년 동안 매년 평균 65명의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난민 또는 임시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음.

- 2011년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러시아에 난민 지위 또는 임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은 모두 328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5년 동안 매년 평균 65명(난민 30명, 임시망명 35명)의 북한 주민이 러시아에 외화벌이 등을 위해 입국했다 작업장을 탈출해 난민 또는 임시 망명을 신청한 것임.
- 328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1명이 난민 지위를 획득했으며 115명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임시 망명을 허가받았음.
- 연도별 북한 국적자의 러시아 난민 지위 신청 건수는 2011년 67명, 2012년 32명, 2013년 27명, 2014년 9명 그리고 2015년(9월30일 기준) 18명이었음.
- 임시 망명의 경우 2011년 43명, 2012년 64명, 2013년 22명, 2014년 32명, 그리고 2015년(9월30일 기준) 14명이 신청했음.
- 이 중 2011년 13명, 2012년 47명, 2013년 20명, 2014년 26명, 그리고 2015년9명이 러시아 이민국으로부터 임시망명을 허가받았음.

○ 북한과 러시아는 2016년 2월 불법 체류자를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했음.

- 러시아에 파견됐다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 노동자가 강제 북송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노컷뉴스, "외화벌이 북한 주민, "러시아에 매년 65명 난민·망명 신청"", 2016.04.13.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19만 명 수준

○ 북한이 연초부터 대규모 해외 인력 송출을 강행하고 있음.

-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는 현지 통신원의 소식을 인용해 북한이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 사이 중국과 러시아, 유럽과 동남아 국가에 근로자를 1,000명 이상 추가 파견하였다고 밝혔음.
- 북한이 인력 해외 송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1~2월 핵·미사일 도발 뒤에 취해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임.
-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벌어들인다면서 북한이 해외 각지에 파견한 근로자는 2016년 3월 19만 명에 육박함.
- 북한의 인력 송출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평양시를 비롯한 대도시에 해외

근로자파견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은 20세 이상, 남성은 30세 이상 건강하고 계급적 토대와 성분에 큰 문제가 없는 근로자들을 싹쓸이 모집하고 있음.

세계일보,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19만 명 육박", 2016.04.27.

북한의 2개 업체,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

○ '2016 베트남 엑스포'에 북한 업체 2개사가 참가했음.

- 코트라는 "4월 13일~16일까지 열린 베트남 최대 규모의 종합 전시회인 베트남 엑스포에 북한 '명신일반무역회사'와 '토성제약회사'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음.
- '명신일반무역회사'는 홍삼차, 인삼 절편, 인삼 엑기스 등의 인삼 제품을 판매했으며, '토성제약회사'는 우황청심환, 송이버섯 술, 간염 치료제 등을 판매했음.
-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북한 업체의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베트남 현지 참관객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음.

○ 북한은 2013년 최초로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모두 6개의 업체(조선종합만년건강, 구문산무역회사, 무병, 송도무역총회사, 평양무역회사 등)가 7개의 부스에 유료로 참가했음.

노컷뉴스, "북한. '베트남 엑스포'에 2개사 참가 ", 2016.04.30.

북한의 외국인 투자 약 8,200만 달러 수준

○ 2015년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6 세계투자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2015년)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 액이 약 8,200만 달러로 추산됐다"고 보도했음. 2015년 투자액은 전년 대비 약 6300만 달러보다 약 30% 늘어났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억 2,000만 달러였던 외부 투자 순유입 액은 2013년에 크게 줄어 약 8,8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2015년 유입된 북한의 외국인 투자 절대 액수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세계 최하위권에 속했음.
- 1990~2015년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약 6억 6,300만 달러임.

○ 한편, 2015년에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50억여 달러로 북한의 60배가 넘었음.

노컷뉴스, "북한, 외국인 투자 약 8200만 달러로 증가", 2016.06.23.

◆ 북한 시장 관련

유엔 대북 제재 한 달 이후 북한 시장 내 쌀값·환율 안정, 휘발유는 폭등

○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 내부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값과 환율 등 물가는 큰 변동이 없음.

- 양강도 소식통은 유엔의 대북 제재 후 북한 내 쌀값과 환율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음.

○ 하지만 최근 연유(휘발유)가격이 2016년 3월 1kg당 7,000원 선에서 2016년 4월 초에 1만 700원까지 올랐다고 전했음.

- 소식통은 "디젤유 가격도 혜산 장마당에서 1kg당 6,350원으로, (2016년) 3월보다 1,000원 가량 오른 가격에 유통돼 농번기를 앞두고 있는 농장들에서 연유확보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전했음.
- 소식통은 "최근 밀수선을 통해 들여오던 연유도 단속 강화로 뜸해졌다"면서 "최근 대규모 건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연유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노컷뉴스, "유엔 대북 제재 한 달, "北 쌀값·환율 안정, 휘발유는 폭등", 2015.04.05.

북한 내 한국 마스크 팩 인기

○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폐쇄 후 한국산(産) 제품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음. 하지만 주민 사이에서 한국산 제품, 특히 '마스크 팩'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데일리NK는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시의 간부와 젊은 여성 사이에서 한국산 마스크 팩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음. 방송은 몇 년 전만 해도 간부나 돈주(신흥 부유층) 여성만 피부미용에 돈을 들였지만 이제 일반 여성도 가세했다고 설명했음.
- 최근 북한 일반 주민 사이에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음.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산 마스크 팩의 가격은 개당 20~50위안 (북한 돈으로 2만 6,000~6만 5,000원)임.

동아일보, "北 간부·돈주들에 韓마스크팩 인기…시장 나오기 전에 다 팔려", 2016.04.11.

북한, 개성공단 제품 중국에 판매 시도

○ 2016년 2월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완전 철수하면서 남겨두고 온 제품들을 북한이 중국 쪽에 판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음.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중국 변경 도시 상점에 개성공단에서 만든 의류를 판매하려 한다고 보도했음.

- 중국 선양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조선족 소식통은 RFA에 "얼마 전 북한사람이 매장을 방문해 개성공단에서 만든 의류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왔다"고 밝혔음.
- 2016년 3월 17일에는 개성공단 완제품이 북한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보도가 나왔음.

동아일보, "장마당도 부족? "北, 개성공단 제품 중국에 판매 시도"", 2016.04.12.

러시아 원유 공급 중단에 따른 북한 기름 가격 상승

○ 북한에서 최근 휘발유와 디젤 등 기름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의 한 소식통은 4월 휘발유 가격은 1kg에 5위안 50전(7,100북한 원)이었으나 최근에는 8위안 20전(1만 700북한 원)으로 올랐다고 전했음.
- 디젤유는 4위안(5,350북한 원)에서 5위안(6,350북한 원)으로 상승하였음.

노컷뉴스, "러시아 원유 공급 중단에 北, 기름 값 치솟아", 2016.05.18.

◆ 기타

북한, 페이스북·트위터·한국 사이트 공식 차단

○ AP통신은 북한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한국의 미디어 웹 사이트를 공식 차단했다고 보도하였음.

- 북한 체신성은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를 통해 차단 사실을 공지했음. 체신성은 공지문에서 "반(反)공화국의 가짜 선전 웹사이트, 성(性)과 성인용 웹사이트가 차단된다"며 페이스북과 한국 사이트, 미국의 소리(VOA) 웹사이트 등을 그 대상으로 언급했음. AP통신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몇 개월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차단된 상태였음.
- 북한에서 외국인은 자유롭게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지만 주민은 정부가 승인한 인트라넷 접속만 허용돼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음.

연합뉴스, "북한, 페이스북·트위터·한국 사이트 공식 차단", 2016.04.01.

북한 휴대전화 이용자, '강성링크'로 이동

○ 이집트 오라스콤이 북한에 설립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의 통화 품질이 갑자기 떨어져 가입자들이 대거 북한 업체인 강성네트로 이탈하고 있음.

- 고려링크 가입자의 통화가 끊어지기 일쑤고 도농 간 통화는 하루 또는 이틀까지 되지 않을 때도 있음.
-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오라스콤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통신기술을 다 빼낸

상태에서 고려링크를 북한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음.

○ 오라스콤 측은 북한이 2011년 강성네트를 출범시키고 고려링크와 합병을 추진하자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 고려링크의 가입자는 2015년 말 기준 300만 명에 달해 영업이익이 8억 달러를 넘어섰음. 하지만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의 외화 반출 거부로 한 푼도 가져가지 못 하고 있음.

연합뉴스, "北 휴대전화 이용자, 토종업체 강성링크로 이동 〈RFA〉", 2016.04.05.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자연재해에 영향 받는 것으로 추정

○ 2015년 기준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하였음.

-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는 2015년 북한에서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인구 10만 명당 7만 1,93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음.

- 2015년 자연재해의 피해를 당한 북한 전체 인구가 1,800만 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음. 인도(1,660만 명)와 에티오피아(1,020만 명), 네팔(560만 명)이 2~4위에 올랐음.

○ 북한은 2015년 5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고 8월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가 속출했음.

조선일보, "北주민 10명 중 7명꼴 자연재해 영향…세계 최다", 2016.04.06.

북한, 지방에 '금연 상점' 등장

○ 북한에서 최근 건강을 위한 금연을 강조하면서 평양에 이어 지방에도 금연 상점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 도 소재지들에 '금연 상점'이란 것이 생겼다"며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동에서 금연 상점이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음.

- 소식통은 "금연 상점은 도 인민보건소 산하에 소속돼 보건소 직원 두 명이 배치돼 상담을 해주고 평양 외화벌이 기관에서 개발한 사탕 종류의 금연 의약품을 팔고 있다"고 설명했음. 소식통은 "금연사탕은 가격에 따라 원 단위 기준(함량 기준)이 다양하며 최하 상품은 한 곽에 30위안, 중간 상품은 60위안, 최고 상품은 120위안에 팔고 있다"고 덧붙였음.

○ 세계 보건기구는 "북한이 2005년 '담배 통제 협약'에 가입한 뒤 금연 운동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며 "평양에 있는 금연 센터는 북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금연 약을 판매해 많은 북한 주민들의 금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음.

-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에서는 백화점, 병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또는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이곳에는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비치돼 있다"고 말했음.

○ 북한의 흡연자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워싱턴대학과 호주 멜버른대학 공동 연구팀은 "북한의 흡연자 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3.4%로 전 세계 평균 18.7%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음.
- 2012년 남성 흡연율이 45.8%로 세계 평균 31.1% 보다 크게 높아 거의 2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지만, 여성 흡연자는 전체 인구의 2.6%에 불과했음.
- 전체 흡연자 수는 2012년 기준 463만 7,000명으로 1980년의 251만 2,000명보다 약 2배 늘었음.

노컷뉴스, "北, 지방에 '금연 상점' 등장…사탕종류 '금연의약품' 팔아", 2016.04.07.

평양 내 고급 커피 전문점 유행

○ AP통신은 평양에 최근 고급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고 보도했음.

- 평양 외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삶이 궁핍하지만 평양에서는 커피와 같은 '작은 사치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AP는 2016년 3월 31일 북한의 인기 커피숍을 직접 방문해 현지 분위기를 전했음.

- 2016년 1월 개업해 성업 중이라는 금릉 커피숍의 여성 바리스타 리현아 씨는 "지난 몇 년간 좋은 커피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이들은 평양에서 최고의 커피숍을 찾아다닌다"고 말했음.
- 금릉 커피숍은 핸드드립 커피부터 카라멜 마키아토, 딸기 스무디 등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판매함. 커피콩은 중국에서 한 달에 한 번 수입함.
- AP가 함께 보도한 메뉴판 사진을 보면 에스프레소는 북한 원화로 400원, 핸드드립 커피는 500원, 카푸치노는 600원, 아이스모카는 900원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커피 가격은 대략 4~9달러(약 4,600~1만 400원) 정도임.

동아일보, "평양도 '커피앓이'…커피숍 우후죽순…가격은 얼마?", 2016.04.08.

북한, 선박 이용한 화물 적재 능력 감소

○ 화물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화물 적재 능력이 9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엔 무역개발위원회(UNCTAD)가 최근 갱신한 전 세계 해운업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북한 국적 상선의 적재량은 모두 82만 6,000DWT로 9년째 감소하고 있음.

- 북한 국적 상선의 적재량은 2006년에 약 170만 DWT로 정점에 이른 뒤 2015년까지 줄곧 감소했으며, 2015년 적재량은 2014년과 비교해 약 6.3% 줄었음. 한국 국적 상선의 총 적재량은 2015년에 약 1,600만 DWT로 북한보다 20배 정도 많았음.
- 북한 국적 상선의 적재량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종류는 '일반 화물선'으로 2015년 기준으로 약 62만 DWT를 기록했음.

○ 북한 국적을 가진 상선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모두 252척으로 몇 년째 감소세를 보였음. 한국 상선의 수는 약 1,800척으로 북한에 비해 약 8배 많았음.

- 북한 국적 상선을 종류별로 나누면 일반 화물선이 가장 많았고, 다음 기타 선박과 유조선이 뒤를 이었음. 특히 북한 국적의 컨테이너 화물선은 1척에 그쳐 81척을 보유한 한국과 대조를 이뤘음.

노컷뉴스, "北, 선박 이용한 화물 적재 능력 9년째 감소", 2016.04.09.

북한, 김일성 생일 맞아 지식인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

○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과학연구와 교육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지식인에게 학위학직이 수여됐음.

- 김일성종합대학 김명철 강좌장,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장명국 실장 등에게 박사의 학위가, 114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716명에게 석사 학위가 수여됐음.

노컷뉴스, "北, 김일성 생일 맞아 지식인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 2016.04.13.

멕시코, 2년 간 억류했던 북한 배 '무두봉호' 몰수

○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2270호)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선박 무두봉호가 멕시코 정부에 몰수되었음.

- 무두봉 호는 2014년 7월 멕시코 해역에서 좌초됐다 구조된 뒤 안보리 제재 대상임이 밝혀졌고 멕시코 정부가 2년 가까이 억류해왔음.
- 멕시코 연방 검찰청은 무두봉 호를 국가 재산으로 몰수하는 명령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몰수 효력은 게재 당일 발생했음. 연방 검찰은 "더 이상의 행정력 손실과 국가비용 지출을 방지하고자 무두봉호를 국가재산으로 몰수한다"고 밝혔음.
- 멕시코 정부는 북한 선원은 2015년 모두 돌려보냈고, 선박 억류에 따른 정박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왔음.

동아일보, "멕시코, 2년 억류했던 북한 배 '무두봉호' 몰수", 2016.04.15.

북한, 중국 여행 사증 발급 중단

○ 북한이 2016년 3월부터 주민들의 중국 '사사여행'(개인여행)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2016년) 3월 초부터 국가보위부가 중국 여행사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음. 소식통은 "이미 중국에 나가 있던 사사여행자들도 국가보위부가 현지까지 찾아다니며 6월 중순까지 모두 귀국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일반 주민들의 중국 여행 사증은 떼어주지 않고 있지만, 화교들의 고국(중국)방문은 막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노컷뉴스, "北, 주민들 중국여행 사증 발급 중단", 2016.06.16.

북한, 원산에 특별 전력 공급

○ 북한 전역이 모내기철을 맞아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고향인 강원도 원산시에는 전력을 특별 공급하고 있음.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원산시에 (하루) 20시간 이상 전기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음.
- 소식통은 "평양과 원산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는 하루 4시간 정도 아침저녁 밥을 짓는 시간에만 전기를 공급하고, 나머지 전기는 전부 농촌 모내기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음.

○ 북한의 전기 생산량은 지난 2013년 221억 kWh로, 5,171억kWh를 생산한 한국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음.

조선일보, "北 김정은, 고향 원산에만 전력 특별 공급…선전 위한 물밑 작업", 2016.06.18.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

○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국가직에 올랐음.

-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음.
- 기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의 신설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에서 벗어나 '김일성 시대'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음.
- 당초 국방위는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상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 중의 하나였음. 그러나 1998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방위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격상됐음.

"北김정은, 국무위원장 '셀프 대관식'…유일영도체제 완결", 2016.06.29.

2 식량사정 및 식량 가격추이

FAO, 북한 2016년 식량배급량 2015년 대비 10% 감소했다고 발표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16년 초부터 북한 주민에게 2015년에 비해 10% 줄어든 370g의 식량이 배급되고 있다고 밝혔음.

-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2016년 4월 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 들어 북한의 식량 배급량은 2012년부터 3년간 1~3월 평균 배급량인 405g보다 35g 줄었고, 지난해(2015년) 같은 기간의 410g에 비해서는 10% 감소했다"고 말했음.
- 담당관은 "가을 추수 시기였던 지난해(2015년) 10~12월의 340g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규모"라고 덧붙였음. 그러나 2016년의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한 573g에 크게 못 미치고 특히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1% 수준에 불과함.
- 코슬렛 담당관은 "지난해(2015년)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든 것이 배급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였음.

연합뉴스, "FAO, 북한 올해 식량배급량 작년 대비 10% 감소", 2016.04.09.

북한 내 2년 연속 가뭄 발생에 따른 주민 영양실조 증가

○ 2015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2014년보다 대폭 감소했으며 북한 주민의 41%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음.

- 유엔은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2015년 곡물 생산량이 2014년보다 11% 줄어든 506만 톤(도정 전 기준)에 그쳤다고 밝혔음. 이는 최근 2년간 계속된 가뭄 탓임. 일부 지역의 경우 2014년보다 곡물 생산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음.

○ 곡물 생산량이 줄면서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감소하였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5년 1~3월 주민 1명당 식량을 하루 370ｇ 배급했음. 이는 유엔의 최소 권장량인 600ｇ과 북한 당국의 목표치인 573ｇ에도 못 미치는 양임.

○ 부족한 식량으로 북한의 많은 주민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음.

- 2014~16년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은 41.6%로 2005~07년 35.5%에 비해 6.1% 증가했음.

조선일보, "유엔, 北 주민 41% 영양실조…2년 연속 가뭄에 작년 곡물생산 11% 감소", 2016.04.21.

북한, 70일 전투 기간 직장 출근자 15일치 식량 배급

○ 북한 지방 당국이 '70일 전투' 기간 동안 직장에 출근한 노동자에 한해 15일치 식량을 배급하였음.

-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청진시에서 매일 아침 기업소 노동자에게 대열을 맞춰 통근할 것을 강요하면서도 출근하는 노동자에게는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전했음.
-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함경북도에서는 '70일 전투'를 맞아 2016년 2월 말부터 노는 사람 없이 모두 직장에 나와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보안원이 이 매일 집을 돌며 무단 결근자나 직장 이탈자 등을 단속해 왔다"고 설명했음.
-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출근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단련대까지 보내면서 관리, 통제하고, 직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2호 창고(전시용 비상식량 창고)까지 풀면서 15일치 식량을 배급을 주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에서는 경제 사정 악화로 상당수 공장의 가동이 중단돼 많은 주민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음.

○ 한편, 북한은 2016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공장이나 기업소에 출근한 주민에 한해 과자 500g과 사탕 500g, 식용유와 술 한 병 등을 배급하였음.

- 2015년 태양절에는 쌀과 식료품을 전 세대에 나눠줬음.

노컷뉴스, "北, 70일 전투 기간 직장 출근자 15일치 식량 배급", 2016.04.23.

북한의 당 대회 시기 식량배급 책임을 기업소에 이전

○ 북한 당국이 제7차 노동당대회를 맞아 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책임을 전국의 공장 기업소에 떠넘겨 반발을 사고 있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공장기업소마다) 7차 당 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식량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 구체적으로 15일분 식량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언질도 이어졌다"고 밝혔음.
- 소식통은 "보름치 식량을 (주민에게) 공급하지 못하면 연대적, 당적 책임을 지고 철직(해임)당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음.
- 최근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김정일 생일 때에도 북한 정부는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였음.

연합뉴스, "北, 당 대회 맞아 식량배급 책임 기업소에 떠넘겨〈데일리NK〉", 2016.05.04.

FAO, 북한 2016년 수확량 21% 증가 예상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감자와 밀, 보리 등 2016년 북한의 이모작 수확량이 2015년에 비해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표한 '세계정보·조기경보국 북한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2015년)와 달리 올해(2016년)는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있는 등 물 사정이 좋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북한 농업성의 공식 전망치를 인용해 "올해(2016년) 감자와 밀, 보리 등 조기 재배 작물의 수확량을 지난해(2015년)에 비해 21% 증가한 36만 3,000톤으로 추정했음.
- 특히 이모작 봄 감자 수확량은 20152년에 비해 27% 증가한 29만 7,000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했음. 밀과 보리도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 6만 6,000톤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했음. 이모작 작물은 6월 한 달 동안 북한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으로 북한 1년 수확량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보고서에서 "지난해(2015년) 11월부터 올해(2016년) 10월까지 일년 동안 북한 주민 한 사람이 소비하는 곡물은 쌀 58kg, 옥수수 92kg, 밀과 보리 6.2kg, 옥수수 13.4kg, 콩 10kg 등 모두 175kg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곡물량 175kg은 한 사람이 하루에 1,649kcal를 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유엔의 하루 권장량인 2,500kcal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 1명 당 207kg의 식량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노컷뉴스, "FAO, 북한 올해 이모작 수확량 21% 증가 예상", 2016.05.05.

북한 탁아소 어린이 4명 중 1명 발육부진

○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탁아소 어린이 4명 중 1명이 발육부진 상태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음.

- WFP가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는 북한 탁아소 어린이 25.4%가 영양실조 탓에 발육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아 빈혈도 심각해 5세 미만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 1~2살 어린이의 절반 정도가 빈혈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음.

○ WFP의 자체 조사 결과 어린이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81%가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도 국제 기준의 70~85% 수준임.

- WFP는 북한 내 취약 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북한 내 6개 식품 가공공장에서 영양 강화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지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합뉴스, "WFP 지원 北 탁아소 어린이 4명 중 1명 발육부진", 2016.05.13.

FAO, 북한 아시아에서 쌀 가장 부족한 나라라고 발표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15년 북한의 쌀 수확량 추정치를 150만 톤에서 180만 톤으로 수정했음.

- FAO는 '식량전망 보고서'에서 "쌀 수확량이 지난해(2015년) 10월 전망했던 150만 톤보다 30만 톤 늘었다"면서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해(2015년) 북한의 쌀 수확이 부진했을 것이라던 분석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음.
- FAO는 "북한이 올해(2016년) 수입 예정인 10만 톤을 더하면 모두 190만 톤의 쌀을 확보하게 된다"면서도 "북한은 조사 대상인 아시아 14개국 중 쌀이 가장 부족한 나라"라고 밝혔음.

조선일보, "유엔 식량농업기구 "北 작년 쌀 수확 180만t 추정…아시아에서 쌀 가장 부족한 나라"", 2016.05.28.

북한, 하루 배급량 360g으로 감소

○ 북한 당국은 2016년 4월부터 주민에게 하루 36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음.

- 북한의 식량 배급량은 유엔 권장량에 크게 못 미치며 2015년 배급량에 비해 12% 줄어든 규모임.
- 북한 목표로 하는 1인 당 하루 배급량은 573g이며, 유엔의 1인 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임.

국민일보, "북한이 굶고 있다? 하루 배급량 360g으로 감소...지난해보다 12% 줄어", 2016.06.15.

3 농림수산 일반

북한, 나무 활착률 높이는 미생물 영양제 개발

○ 북한 매체는 북한 산림과학원 경제림연구소 과학자가 옮겨 심는 나무의 활착률을 높이는 미생물 영양제를 만들었다고 보도하였음.

- 북한의 대외용 매체인 '메아리'는 2016년 4월 1일 "미생물 배양액에 금강 약돌 가루와 뿌

리내림 촉진제 등을 혼합해 만든 이 미생물 영양제는 나무 종자나 뿌리 처리 등에 이용하게 돼 있다"고 소개하였음.

- 매체는 50~70배 희석한 미생물 영양제에 저온 처리한 종자를 4~8시간 담근 후 모판에 뿌리면 발아율이 90% 이상에 달한다고 설명했음.
- 매체는 100배로 희석한 영양제에 나무모 뿌리를 담근 후 심으면 활착률이 95% 이상에 이른다고 덧붙였음.
- 큰 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는 뿌리에 100~150배 희석 액을 5~7리터 뿌린 다음 심으면 활착률을 95% 이상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음.

노컷뉴스, "北, 나무 활착률 높이는 미생물영양액 개발", 2016.04.01.

북한 핵실험장 주변 채취·수출 송이에 방사능오염 우려

○ 북한의 4차례 핵실험으로 북한산 농산물 수출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대만 석간식문 자립만보(自立晚報)는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인접한 지역에 송이버섯 등 수출 임산물 산지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음.
- 북한의 송이버섯 주산지인 함북 명천군 칠보산 지역과 핵실험장인 함북 길주군은 30여 km 떨어져 있음.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10월 중국을 통해 밀수입된 북한산 능이버섯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핵분열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100Bq/kg)의 9배 이상 검출되었음.

연합뉴스, "北 핵실험장 주변 채취·수출 송이에 방사능오염 우려", 2016.04.04.

북한, 평양 보통강 등지에 '민물양식장' 설치 증가

○ 평양 보통강 등 북한의 그물우리양어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하였음.

- 북한의 대외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 은 2016년 4월 4일 "수심이 얼마 깊지 않은 평양 보통강의 특성에 맞게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그물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설치됐다"고 전했음.

○ 황해북도 금천군 예성강에도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새로 설치됐음.

- '조선의 오늘'은 "면적이 2,500㎡인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20개의 그물우리와 종합조종실, 먹이창고, 종업원 휴게실로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했음.

노컷뉴스, "北, 평양 보통강 등지에 '민물양식장' 설치 증가", 2016.04.04.

북한의 산림 황폐화로 인해 야생 동·식물 61종 멸종위기

○ 북한에서 야생 동·식물 61종이 산림 황폐화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음.

- 세계은행이 공개한 '북한 산림 벌채와 생물 다양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북한에 포유류 9종과 조류 27종, 어류 17종, 식물 8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음. 보고서는 1990년 8만 2,000㎢ 에 달했던 북한 산림 면적이 2015년 5만 ㎢로 줄었다고 지적했음.

○ 북한은 전체 토지 면적의 2.5% 정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 7.6%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규모임.

○ 세계은행은 2000년~2015년 사이 북한 산림이 매년 1.83%의 비율로 황폐해지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전 세계 214개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음.

노컷뉴스, "세계은행 "北, 산림황폐화로 야생 동·식물 61종 멸종위기"", 2016.04.19.

북한, 좋은 작황으로 대중 곡물 수입 70% 감소

○ 북한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국산 곡물 수입물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14년 이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자체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 한편 대북 압박 조치에 따른 외화난으로 값비싼 쌀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옥수수와 콩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음.

-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모두 4만 7,300여 톤으로 2014년 16만 1,300여 톤에 비해 70.7% 감소하였음. 이는 2014년 북한의 가을 작황이 좋았기 때문임.

○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4-15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508만 톤으로, 2013~2014년 양곡연도의 497만 톤 보다 11만 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 가운데 쌀의 비중이 지난 2014년 39.6%에서 2015년에는 36.2%로 3.4% 감소했고, 밀가루의 경우는 49.0%에서 30.5%로 급감했음.

- 옥수수 수입 비중은 9.7%에서 20.9%로 급증했고, 두류도 1.2%에서 12.1%로 증가했음.

노컷뉴스, "북한, 대중 곡물 수입 70%급감…'좋은 작황' 때문", 2016.05.10.

독일 NGO, 북한서 유기농업 체계 구축 사업 진행

○ 독일 민간단체인 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세계유기농운동연맹)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에서 자립적인 유기농업 체계 구축 사업을 펼치고 있음.

- IFOAM은 "평안남도에 위치한 쌍운농장을 주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서 여러 해 동안 유기농업 연구와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쌍운농장에서 생산된 알곡, 과일, 축산 등이 유기농업 연구 사업의 대표 결과물임.
- 유럽연합은 오는 2018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 45만 유로(미화 51만 달러)를 지원했음.

노컷뉴스, "독일 NGO, "북한서 유기농업 체계 구축 사업 진행"", 2016.05.12.

북한, 무직자·무단 결근자 농촌 지원 강제 동원

○ 북한에서 '200일 전투'와 농촌 동원 시기가 겹치면서 북한 당국이 무직자와 직장에 무단으로 결근한 자를 적발해 노동단련대 대신 농촌 지원에 강제로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일본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 내 여러 농장에 무직, 무단 결근자들로 구성된 동원 인력이 농장 선전실이나 공터에 천막을 치고 숙식하면서 김매기를 비롯한 각종 농사일에 동원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농촌 지원의 노동 강도가 높아 허약자가 속출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는 도둑이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매체는 "농장에서는 이전의 농촌 지원과 달리 강제 노동 동원자에 따른 작업 성과가 좋아 반기고 있다"고 전했음.
- 매체는 "강제로 농촌동원에 투입된 북한 주민은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받고 있으며, 도주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전체가 벌을 받기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음.
- 강제 노동에 동원된 무직자는 2~3개월간 강제 노동을 한 뒤 직장에 인계돼 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음.

노컷뉴스, "北, "무직자·무단 결근자 농촌지원 강제 동원"", 2016.06.24.